

# 직장직능단체 활성화 '청신호'

## 조계종, 단체장 간담 · 연수회 등 예산 지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직장·직능단체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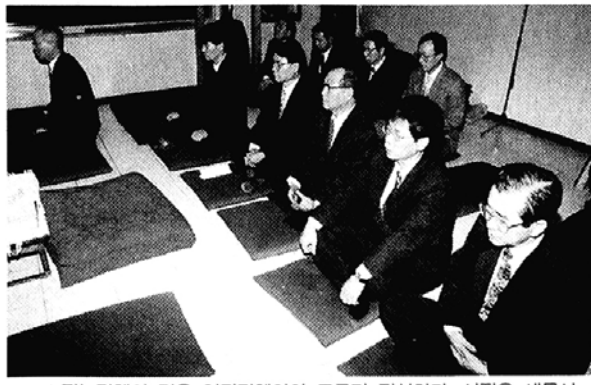
포교원은 이를 위해 1천22만원의 예산을 책정, 직장·직능단체장 간담회와 2개단체를 선정하여 연수회를 지원키로 했다.

4월경 열릴 예정인 직장·직능단체장 간담회는 60여개 단체장을 초청, 현장의견 청취 및 직장불자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금융단, 공무원, 법조인, 방송·연예인 등 직능단체 연합 연수회를 포교원이 후원하여 1박2일간 2회 열기로 했다.

또 자체수련대회 등 행사가 열릴 경우 포교원 담당자가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불교입문' 단행본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포교원의 이같은 계획은 올해 긴밀한 연대와 협조로 직장·직능단체 운영을 정상화하고, 단체인정정보교류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 이는 전국 직장·직능단체연합회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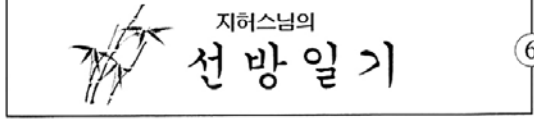
◇직능단체의 경우 연수단체와의 교류가 절실하다. 사진은 세무사 불자지원회의 임정수련모임.

포교원 김병주계장은 "단체장 간담회와 연수지원을 통해 침체된 직장불자의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며 "올해 2곳의 직장·직능단체 연수회 지원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계는 직장·직능단체연합회의 법인설립은 물론 신문까지 발간하고 있으며 연합회관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타종교의 경우 직장·직능단체를 선교의 최적대상으로 생각하여 담당 목사나 신부를 배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계단체에 스님이나 전담 포교사를 보내는 방안과 범교의 수련회 공간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난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 식욕은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



## 11월 15일 본능과 선택

상원의 동지달은 매섭게 차갑다. 앞산과 뒷산 때문에 밤도 무척이나 길다. 불을 밝히고 먹는 회덮밥 아침 죽이 꿀맛이다. 오후 다섯시에 먹은 저녁은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소화되어 위와 기능이 정지상태였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상원사 김치가 짜냐?" 주안 열전의 소금이 짜냐? 고 물을 정도로 상원사 김치는 짜기로 유명하다. 그런 김치를 식욕이 왕성한 젊은 스님들은 나물 먹듯이 먹는다. 식욕을 달래기 위해서다. 하기가 상원사 골짜기의 물은 겨울에도 마르지 않으니가 염도(鹽度)를 용해시킬 물은 걱정 없지만,

선택에게 화두 다음으로 끈질기게 붙어 다니는 생각이 있으니 그것은 식사(食思) 먹는 생각이다. 출가인은 육망의 단절상태에 있지 않고 어떤 내지는 보류상태에 있을 뿐이라고 이 식욕은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 바로 식본능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공포가 바로 기아에서 오는 공포라고 결론 지어준다.

화두에 충실하면 견성이 가능한 것처럼 식사(食思)에 충실하다보니 먹는 공사가 벌어진다. 대중공사에 의해 어려운 상원사 살림이지만 초하루 보름에는 별식을 해 먹자는 인연이 통과되었다. 별식이란 할밥과 만두국이다.

절에서 행해지는 대중공사의 위력이란 비상계엄령보다 더한 것이어서 일단 통과된 사항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소를 잡아 먹자고 의결되었으면 소를 잡아 먹어야 하고 절을 팔아먹자고 의결되었으면 절을 팔아 먹어야 한다. 대중공사의 책임은 대중 전체가 지는 것이며 또 토의는 극히 신속하고 여러가지 여건에 충분히 부합되어야만 결의되기 때문에 극히 온당하지만 약간의 무리도 있을 수 있다. 상원사 김치를 먹어보면 원주스님의 짭짤한 살림씨를 알 수 있지만 대중 공사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보니 어쩔 수 없이 원주실에 비장애된 참쌀과 팔과 김이 나왔다.

부엌에서 팔이 살아져가자 큰방에서 좌선하고 있는 스님들의 코끝이 발흥거리더니 이내 조용히 입맛을 다시고 균형을 넘기는 소리가 어간에서나 말석에서나 똑같이 들려왔다.

사냥개 발흥 정도로 후각이 예민한 스님들이고 더구나 거름되는 식사로 인해 상상력은 기막힌 분들이라 화두를 잠깐 밀쳐놓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할밥을 기름이 번지르한 김

에 싸서 입안에 넣어 우물거려다가 목구멍으로 넘기면 배속이 뭉클하면서 등골에 붙었던 뱀가죽이 불속 튀어나오는 장면까지 상상하게 되면 약간 구부러졌던 허리가 반듯해지면서 밀려 놓았던 화두를 꼭 붙잡게 되고 용기 백배해진다. 이 얼마나 가난한 풍경이냐. 이 얼마나 천진한 풍경이냐. 할밥 한 그릇이야말로 기막히게 청신한 활력소이다.

인간의 복수심과 승리욕은 자기 밖에 보지 않고 자기 안에서 더욱 가중스럽고 잔혹하다. 별식은 넉넉히 장만하여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식량(食量)대로 받는다. 주림에 무척이나 고달픔을 겪은 선택들이라 위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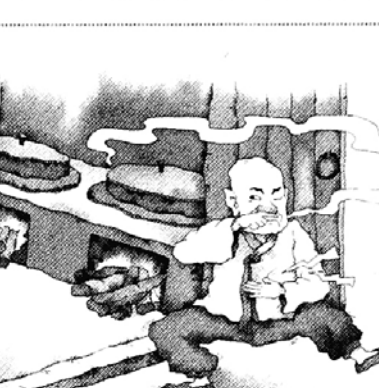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다. 좌선에 든 스님중에서도 신티름을 하고 생목이 올라 침을 처리하지 못해 중간 퇴장을 하는 스님들이 더 많을 것이다. 결과부좌의 자세를 갖춘 스님중의 몇분은 식근증이 유발하는 졸음을 쫓지 못하여 끄덕거리는 고개짓을 되풀이한다.

통계에 의하면 선택의 9할이 경종의 차이는 있지만 위장병 환자라 한다.

식본능에 무감히 패배당한 적나라한 실상이다. 노년에 이르도록 경성하지 못한 선택은 만신창이가 된 위장을 어루만지면서 젊은 선택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뒷방 신세를 지다가 마침내는 골방으로 쫓겨가서 유아무야 사라져 간다. 그래서 선택은 이종으로 도박을 한다. 세간(인생)에 대한 도박, 출세간(僧伽)에 대한 도박.

언제나 모자라는 저녁 공양이 남아 돌아갔다. 위가 소화불량을 알리느라 신티름을 연발하는 스님들은 공양시간에 참석하지 않았고 끼니를 거르기가 아쉬워 침착한 스님들은

물에 말아 죽처럼 훌훌 들러 마신다. 그렇게도 죽 먹기를 싫어하는 스님들이나, 저녁 시간 큰방은 경성자가 많이 행행그렁하여 파리 몇마리가 회를 치면서 제 세상을 만난듯 자유롭다. 대신 뒷방은 만신창이. 뒷방 조실의 코믹한 면상에 희색이 역어한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에 누운 지객스님이 말을 걸어왔다. 학부출신에다 대교과를 마친 분이지만 과묵해서 시비에 끼어 들지 않는 스님이다.

"인간의 본능역제란 미덕일까요? 부덕일까요?"

"정신적인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선 약간의 미덕이 될 수 있지만 육체적인 조화를 위해선 부덕이

조화요.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약덕이 될 수 있지만 늙어갈수록 미덕이 될 수 있다. 한참후 다시 물어왔다. "선객은 반드시 본능역제를 행해야만 견성이 가능할까요?"

"본능을 억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택에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지요. 본능역제는 필요조건에 해당되고 견성은 충분조건에 해당되었지요. 필요조건은 수단같은 것이어서 여러가지가 있었지요. 본능역제가 하나의 수단이라면 그 역(逆)인 본능개발도 또한 수단이 되겠지요. 필요조건인 본능역제가 없더라도 충분조건인 자성이 투철하면 견성의 요건은 충족 되었지요."

"함수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가 본능역제라면 다른하나의 변수는 자성에 해당되었지요. 그런데 함수관계에서 변수가 없어도 함수관계가 성립될까요?"

"수리학적인 공리를 선리(線理)와 대조 내지는 결부시킬 수는 없잖을까요. 전자는 형이하학적인 것이고 후자는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선객의 필요조건인 본능역제와 충분조건인 자성에서 필요조건은 없어도 충분조건만 있다면 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인가?"

## 찰밥 별식에 오후 입선 10여명 결석 多思는 정신 죽이고 포식은 육체 죽여

정은 아랑곳 없이 발우 가득히 받아 이제까지의 주림에 대한 복수를 시원스럽게 한다. 찰밥이고 보니 격에 맞춰 상원사 특유의 산나물인 공취와 고비나물까지 곁들여 상을 빛나게 해 준다. 발우 가득 찰밥과 나물을 비우고서는 포식과 만복이 주는 승리감에 젖어 배를 내밀고 거름거려지면서 "평양 감자가 부럽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함창한다. 생식하는 스님에게 죄송하다고 고하니 자기도 찰밥을 먹었으니 배속에서야 마친차기라고 대구한다.

불경은 가르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 괴롭다' 라고.

애증을 떠나 단무심(但無心)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이다. 이 경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택들이지만 주림에 시달림을 받다보니 스스로 경구를 어기고 포식을 했으니 그 과보가 곧 나타났다.

오후 입선시간에 결석자가 10여명이 넘었

## 박봉 쪼개 9년간 보시행

### 광동여고 교사 39명 장애인등 도와

9년간 남몰래 보시행을 실천해온 교사들이 있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참교육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 광동학원(이사장 일민) 산하 광동여고 39명의 교사들이 9년부터 박봉을 털어 어려운 곳에 보시하고 있는 것.

동참하는 교사들은 모두 익명으로 참여하며 월 2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실시일만큼 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매월 적립된 34만8천원가량은 장애인 포교모임인 조계사 원실회와 대부도 동지청소년의 집에 전달하고 있다. 물론 보시하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종교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보낸 것이라는 것 밖에 모른다.

이화송교장은 "불교종립학교 선생님께서 순수하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하시는 의미로 시작됐다"며 "9년째 접어들었지만 시작했던 마음 그대로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금융단체회장 김윤하씨

전국금융단체자연연합회는 1월 29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제3대 회장에 김윤하(수협 여업조합부 부부장)씨를 선출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 연 2회 합동법회와 명찰순례, 가족동반 수련회 및 수계법회, 산행, 보시활동 등을 확정했다. 특히 분기당 1회씩 가족수련회를 갖는 등 기도중심의 활동을 펼쳐기로 했다. 금융단체자연연합회는 상임위원회를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2)398-6464 이충훈간사

## 우리 모임에선

### 교사불자련 가족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강릉 동명나기사에서 가족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족법회는 법회에 이어 철야정진기도로 진행된다. 문의 011-446-2517

### 동대문경찰서 정기법회

동대문경찰서 동불회(회장 김화

## 28년 공직생활 · 미담업무 경찰이 수상집 펴내

대구경찰청 불교범우회 회장인 조구이씨(수사 1계장)가 최근 수상집 <밝은 마음 밝은 세상>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상집 <밝은 마음 밝은 세상>에는 조구이회장이 28년간 경찰생활하며 듣거나 자신이 겪은 주변 사람들의 자비행이 실려있다.

회장은 "주위의 미담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게 됐다"며 "인지대응으로 노인들에게 영정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포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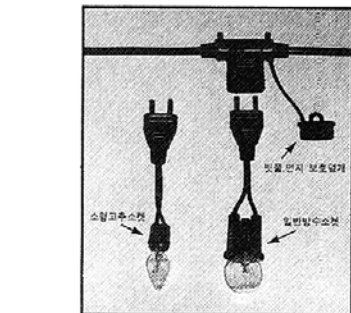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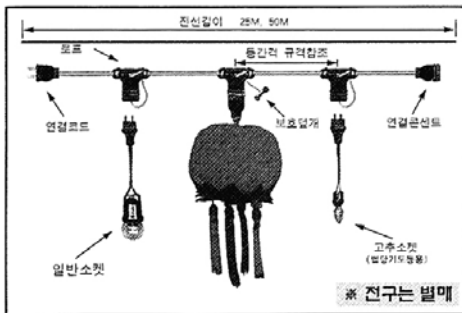
월)는 18일 12시 청사 3층 법당에서 법회를 개최한다. 법문은 김진홍 포교사(대한불교경향포교회장)가 맡는다. (02)3675-1118

### PC통신 불동 수련회

PC통신 불교동호회는 6일부터 7일까지 99년도 동계수련회를 개최했다. 나우누리 부처님마을과 넷츠고 불교동호회가 연합해서 개최한 동계수련회는 공주 마곡사의 수덕사, 등을 참배했다. 수련회는 도웅, 법안스님의 강의와 1080배 정진기도, 수계식 순으로 진행됐다.

##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 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주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 : 011-833-8018  
영 · 호 남 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 (0591)757-3626 휴대 : 011-869-4854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하...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 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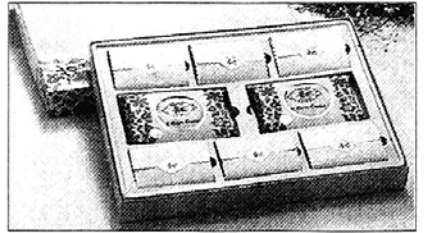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음식물의 성분이 신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질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굽어질 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향비와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년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질혈)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이 사라졌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해당되는 증상(○) 마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생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장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옆가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노나 감당능력이 고를을 당한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